

신테카바이오 (226330)

FS Research

황세환 연구원

admin@fsresearch.net

투자의견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주가(04/18)	11,90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1,608억원
총발행주식수	13,515,516주
60일 평균 거래량	158,393주
52주 고	20,300원
52주 저	9,700원
외인지분율	0.00%
신용비율	3.01%
자본금	68억원
액면가	500원

주요주주	
정종선 외	20.1%

미전환된 주식수	(좌:행사기간)
없음	

주요 자회사	(우:지분율)
없음	

회사의 체질이 달라지고 있다

AI신약 개발부터 임상까지

동사는 2009년 설립된 바이오 벤처회사로 빅데이터 처리기술과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신약후보물질 발굴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합성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기술인 DeepMatcher는 10억종에 달하는 수많은 화합물을 타겟 단백질에 가상으로 결합 시켜서 어떤 화합물이 타겟 단백질과 가장 잘 결합하는지 찾아주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DeepMatcher의 메리트는 AI기술과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약후보물질을 좀 더 빠르게 저비용으로 찾아준다는 것이다. 두번째 기술은 Neo-ARS이다. 이는 환자 암세포의 유전체 검사를 통해 정상조직에는 없으나 암조직에만 존재하는 시퀀싱을 찾아내어 환자의 암조직에만 반응하는 펩타이드 후보물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술은 유전체 분석과 딥러닝의 융합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신약개발도 AI가 대세

The Insight Partners에서 발표한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인공지능-2027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매출액은 2019년 39.9억 달러에서 2027년 1,078억달러로 연평균 49.8%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AI신약개발업체인 엑스사이언티아는 사노피, GSK 등과 AI신약개발 기술로 후보물질 도출에 대한 제휴를 맺기도 했다. GSK는 평균 5.5년 걸리는 신약후보물질 발견을 1년으로 줄이고 비용도 1/4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벤처 아톰와이즈는 하루에 100만개의 화합물을 선별할 수 있어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시간을 단축할수 있다고 했고, 베네볼런트AI는 얀센과 독점 라이선스 제휴를 맺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저분자량 약물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AI신약개발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도 진행할만큼 시간과 원가 측면에서 메리트를 갖고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 배)

결산(12월)	2018	2019	2020	2021	2022F
매출액	2.9	4.6	6.1	3.2	5.0
영업이익	-29.5	-51.9	-71.0	-88.7	-100.0
영업이익률	-1,030.5%	-1,125.8%	-1,164.2%	-2,798.7%	-2,000.0%
세전이익	37.5	-229.7	-64.9	-152.7	-100.0
지배주주순이익	37.5	-229.7	-64.9	-152.7	-100.0
PER	-	-	-	-	-
PBR	-	4.4	7.4	8.8	5.8

자료:FS리서치, 텔레그램 - <https://t.me/FSResearch> 홈페이지 - <http://www.fsresearch.co.kr/>

FS리서치 텔레그램

FS리서치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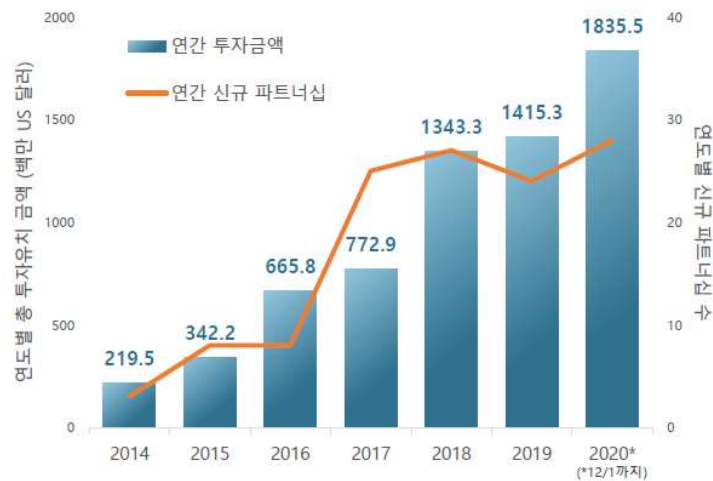


IPO로 인한 자금확보 -> 신약개발까지 뛰어듦

동사는 상장하면서 생긴 자금으로 신약개발팀을 세팅하고 컴퓨팅 인프라를 확장하였다. 기존 동사의 수익모델은 고객사한테 일정금액을 받고 용역 개념으로 신약후보물질을 찾아주거나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쉐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IPO로 자금 여력이 생기면서 신약개발 스테이지를 더 진행해서 라이선스아웃을 할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해졌다. 동사는 STB-C017이라는 IDO 및 TDO 이중억제제 선도물질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STB-C017은 2019년 3월 CJ헬스케어와 공동으로 발굴한 후 CJ헬스케어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보유한 파이프라인으로 DeepMatcher 기술로 발굴한 물질이다. 동사는 2020년 미국 암학회 AACR에서 STB-C017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실험에서 STB-C017과 PD1, CTLA4를 삼중 병용투여하면 대조군인 IDO 단독 억제제 대비 생존율이 89% 향상됐다는 내용이였다. 현재는 STB-C017의 최적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후보물질 발굴 역시 진행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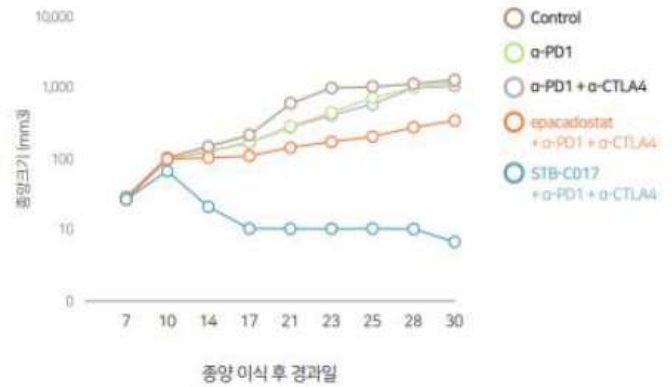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다양한 신약 및 백신 개발이 필요해지면서 후보물질 도출에 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AI신약개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동사의 경우 쌓여진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단순히 용역 수수료만 받는 개념의 회사를 탈피하여 수익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1. AI신약개발 연간 투자금액



자료: 신테카바이오

그림2. STB-C017 동물실험 결과



자료: 신테카바이오

▶ Compliance Note

- 동 자료는 투자에 대한 참고자료일뿐,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시에 FS리서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내용은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지만, 모든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